불탄 고운사 사찰림, 자연이 복구한다

▶1면에서 이어짐

‘자연복원’ 전망과 기대

사찰림 자연복원 최초 사례 ‘눈길’
그린피스 · 환경연합 등 전문가팀
“현장 이미 새싹…야생동물 서식”
자연생태 변화 추적 조사 박차



의성 고운사는 8월 4일 경내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자연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그린피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초대형 산불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집어삼키면서 전각을 포함한 사찰림 전체 면적 248.87ha 중 약 97.61%인 242.92ha를 잃었다. 축구장 340개 크기로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국내 사찰림 중 가장 큰 규모다. 고운사 사찰림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한 가운데,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산불 피해지를 기존 방식인 인공복원이 아닌 자연복원을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고운사의 결정은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최초 사례로, 나무줄기까지 태운 수관화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본격적 복원이다. 현지 생태계 조사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연구팀이 맡았다. 이규송 연구팀은 산불 피해 강도 분석, 현존식생도 작성, 토양 침식 평가 등 식생 회복탄력성 평가를, 한상훈 연구팀은 카메라트랩과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중대형 포유류 및 박쥐류 조사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담당한다.

8월 4일 열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규송 교수는 “산불피해지역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식생의 회복탄력성 평가와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토양안정성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박사는 야생동물 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반달가슴곰, 노루, 멧돼지 같은 대형 포유류부터 흰넓적다리붉은쥐 등 소형 포유류와 어치 등 조류가 도토리 같은 식물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 숲의 관리자”라며 “야생 동물은 숲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 참가자들은 이번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태형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인공복원으로는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그간 산림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의 인공복원을 반복해왔다. 인공복원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다는 점과, 기준 숲을 베어 내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지시하며 산림산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 참가자들은 고운사 사찰림을 둘러보며 사찰림이 산불 피해 이후 약 4개월간 이미 자연복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침엽수는 대부분 소실됐지만 활엽수 대부분은 생존해 빠르게 새싹을 틔웠으며 다양한 야생 조류도 숲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 실제 현장 조사에서 너구리와 박쥐, 등줄뒤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서는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꾸준히 추적 관찰,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고운사가 협력해 추진하는 첫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산불 피해를 입은 다른 사찰림 복구 계획에도 참고할만한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동방학원 인수합병 ‘첫발’

이사회서 인수 대표자 선임
내년 3월 경 최종 인수 계획
의료원 기채승인 등 안건 처리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가 의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학원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5일 교내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2회 이사회를 열고 동방학원 인수합병 추진 대표자로 이사장 돈관 스님을 선임했다.

1946년 4월 의성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한 학교법인 동방학원은 1979년 3월 의성고등학교를 개교했으며, 현재 9개 학급 18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명덕 현 동방학원 이사장이 조계종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고, 종단의 현장 조사 결과 학교법인 동국대에서 인수합병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법인 동방학원 측도 이를 수용해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중 의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 및 인수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9~10월 중 산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에는 학교법인 동국대와 학교법인 동방학원의 인수합병 협약식이 진행되며, 교육부 합병 인가를 거쳐 내년 3~4월 경에는 최종 합병 인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 명문학교를 인수합병할 수 있게 된 것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인수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삼조 스님의 후임으로 이사에 선출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법인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안건들도 잇달아 가결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융자 사업’을 통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경주병원이 배정받은 85억4700만원의 융자금을 기채 승인하는 ‘의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기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중증·응급 필수 진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과 응급의학과 의료진, 입원전담의 등 핵심 인력 충원을 진행하며, 경주병원은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구축, 응급의학과 전문의 운용에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법인산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법인산하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경주병원 시설대여(리스)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매각)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 가결하고 폐회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사 진화 스님(증심사 회주)과 성화 스님(장안사 주지)은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각각 쾌척했다. **신중일 기자**

도선사 새 주지에 호법부장 도심 스님

진우 스님, 8월 7일 임명장
기념관 복구기금 50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7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직할교구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임기는 9월 30일부터 4년이다.

진우 스님은 “도선사는 강북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청담 대종사의 마음과 뜻이 담긴 도량”이라며 “앞으로도 (청담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청담 문도가 화합하고 사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심 스님은 “청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 어른스님들 잘 모시고 문도 화합을 이끌겠다”며 “선명상을 통한 전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도심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도심 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사회부장 및 중앙종회의원 16·17·18대를 역임했다. 현재 호법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관음종,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조사 후원

총무부장 홍경 스님 등 방일
새기는회에 모연기금 전달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 조사를 후원했다.

관음종은 “8월 6~8일 진행되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잠수조사 참관을 위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과 신강호 주무관이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잠수조사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이 주관했다.

이번 잠수조사는 제3차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 1300만엔이 모여 진행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7월 29일 MBC PD수첩을 통해 조세이 탄광의 실상이 소개되면서 방송 이후 23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으며, 이는 현장에 전달됐다.

한편,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83명의 유해 발굴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방송 · 언론보도 등 분야
9월 3일까지 접수 가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2024년 8월 30일~2025년 9월 2일까지 발표된 불교적 관점을 담은 모든 콘텐츠다. 공모부문은 △방송(TV·라디오) △언론보도(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팝캐스트, 웹툰 등) △특별부분(영화, 뮤지컬, 광고, 미디어교육 등) △언론인이다. 접수는 방문과 우편, 이메일(jokbmedia@wehago.com)로 가능하며 9월 3일까지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열린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02-2011-1681

임은호 기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일시 | 2569(2025). **8. 21**.(목) 오후 1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에 서시고, 법주사·용화사·대흥사를 미륵도량으로 장엄하신 미룡당 월탄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원적에 드시는 순간까지 제방선원을 순력하며 수행정진하신 대종사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 금오미룡문도회,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관 | 불교신문, 한국불교학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 석림동문회, 중앙신도회, 국회정각회, 대한불교진흥원,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 문도명단 |

상 좌 성운 각현 일공 혜강 성찬 각명 각륜 각철 각운 각원 각만 각능 각립 각문 각주 각우 각범 각광 각연 각승 각혜 각의 각밀 각래 각조 각초 각안 정도
손 상 좌 동출 원명 원상 덕산 법흥 원해 원경 덕현 효광 원범 원철 원오 효정 효원 동광 동관 지관 효당 법원 효담 법오 덕현 법안 정심 도원 효인 현암 도선 범종 무진 동원 정수 법종 묘광 혜욱 지안 여현 효운
재가제자 주호영(국회부의장) 대덕 효경 약산 경욱 신광 덕봉 영순 각진